

주현절 후 여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6<sup>TH</sup>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3년 2월 1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7 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통일 3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 번 시편 1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Exodus) 20:1-17</b>	염신철
찬 양 Anthem	“주 하나님 나를 지키시네”	찬양대
설 교 Sermon	<b>“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예수 그 이름”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80 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통일 10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라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말하면서도,

감사가 없었고, 삶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나태함과 이기심과 무관심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부터는 우리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일 4:7-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개역개정, **출 20:7**)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less who misuses his name.” (NIV, **Exodus 20: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12 (주일)	2/13 (월)	2/14 (화)	2/15 (수)	2/16 (목)	2/17 (금)	2/18 (토)
	창45	창46	창47	창48	창49	창50	출1
본문	막15	막16	눅1:1-38	눅1:39-80	눅2	눅3	눅4
	욥11	욥12	욥13	욥14	욥15	욥16,17	욥18
	롬15	롬16	고전1	고전2	고전3	고전4	고전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2/15 오후7:30)	일곱문장으로 읽는 구약(2) – “아브라함” (창12:3)
토요 새벽기도회 (2/18 오전6:30)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사111:1-10)

지난 주일(1/29)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25)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출애굽기 20:1-17)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훼손되었고, 왜곡되어 버렸기에, 죄인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이 우상을 만들게 된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십계명의 두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You shall not make idols for yourself)”는 말씀은 한 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상을 경계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1)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만들기 때문이고, 2)우상은 우리를 얽어매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굴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며, 3)우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편협하고 이기적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섬김과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우리 신앙의 단일함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